

〈인간 개조〉론에 대하여

군사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구호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 개조〉라는 말이다. 혁명 과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제도의 개혁 혹은 폐습을 없이 한다는 것도 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혁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협조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혁신되어지지 않고서는 혁명이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인간 개조〉론이 함축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는 혁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혁명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언제나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정치 제도보다 사회의 구성 요소인 한 개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앞에서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결단으로써 자기를 혁신하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개조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죄인의 자기 혁명과 비록 그 차원은 다를 지언정 유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신생의 생활을 〈인간 개조〉와 직접 혼동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런지 모르나 〈인간 개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의식으로써만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이러한 유추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개조〉는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강력한 계몽과 아울러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조)란 기계 부속품을 갈아서 수리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인간이 마음 바탕과 몸가짐을 올바르게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앞에서 언제나 신앙적인 결단을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급격한 변천에 처하여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려고 한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나치스 폭정의 앞잡이였던 <아이히만>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잔인하고도 소름이 끼치는 악마적인 존재의 장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간 나치스 정권에 과감히 항거하고 히틀러의 폭정에 용감히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오토 디벨류스 감독이 금번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성명을 하였다.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릴 정도로 나치스의 잔인 무도한 유대인 학살의 집행자 아이히만의 처형에 대해서 오토 디벨류스 감독은 서슴치 않고 말하기를 아이히만의 저지른 죄악은 그 개인의 죄 뿐만 아니라 전 독일 민족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동등 서독에 있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경고를 발했다. 아이히만 한 사람의 처형으로써 독일 민족 전체의 잔인성이 깨끗이 씻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치스 정권에 항거하고 그 불의를 채찍질 하였지만, 그 앞잡이가 처형 당할 때는 다 같이 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디벨류스 감독의 말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던 며칠 후의 동경 시내의 신문과 벽보에는 <국민 총참회 운동>이라는 포어가 범람하였다. 일본 사람들 전체적으로, 저들의 위정자들의 실책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참회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다. 과연 일본 사람들이 어느 만큼 그 후에 참회를 하고 <개조>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아물든 국민의 공동체 의식에서 국가적인 문제에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자는데 그 동기가 있음은 틀림없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자신이 반성하여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 구정권 시대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 부정 축재자들의 희생이 된 사람들, 또한 끝까지 지조를 지켜 가면서 결백한 생활을 계속한 사람들은 구정권과 구악을 저주하고 욕설을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돌이켜 생각하여 본다면 과거에 저질러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공동체 의식으로써, 내면화하여 하나의 주체적인 공동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남의 실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공동적인 괴로움을 받기를 자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이러한 주체적인 공동 수난(Mitleiden)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눈 앞에는 여러 가지 해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놓여 있다. 문제는 해소되어질 것과 해결되어질 것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 운영의 묘를 다하여 차곡차곡 한 가지씩 해소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해소되어질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그대로 해소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방 안에 너지 분하게 널려 있는 물건들을 벽장에다가 덮어 놓고 던져버린다면 아무리 방 안은 정돈이 잘된 것 같지만 벽장 속은 엉망이다. 해결해

야 할 문제를 일시적으로 벽장 속에다가 해소시켰을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 개조라는 문제는 해소도 할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고 다만 해답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과연 인간 개조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한 우리 눈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며 우리에게 정당한 해답을 하라고 육박하여 오는 문제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밑 바닥을 뒤흔들어 놓고 인간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켜서 진리와 사랑의 생활로 이끌 수 있는 자만이 이 문제의 정해답자가 될 것이다.